

전통소재와 자연물을 활용한 조명디자인 개발 연구

윤 여 향^{†,1}, 김 지 수²

¹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목조형가구학과, ²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A Study on Development of Lighting Design Utilizing Traditional Materials and Natural Objects

Yeoh-Hang Yoon^{†,1}, Ji-Soo Kim²

¹Department of Woodworking & Furniture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04066, Korea

²Department of Design & Craft, Graduate School, Hongik University, Seoul 04066, Korea

Abstract: As modern society attaches important to a value in mental aspect and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who become diverse and individualistic, lighting design also changes closely with everyday life. This study suggests a new concept of indoor lighting design, combining natural objects with lattice and Korean paper, one of our representative traditional materials in lighting design used in everyday life. In particular, it was designed with aesthetic sense of traditional culture and Korean sentiment besides external effect and function by combining Korean paper with natural objects such as insect and plant, material that could be easily obtain around us. As a result, it is intended to enhance quality of life and pursue happiness by suggesting a new concept of lighting design which is modern, harmonizes with everyday life of modern humans who become individualistic, and can arouse sensibility,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lighting in indoor lighting.

Keywords: lighting design, traditional materials, natural objects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초의 인공조명인 백열전구로부터 시작하여 형광등, 나트륨램프, 메탈램프, 그리고 LED 조명에 이르기까지 인공조명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변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소재의 조명은 딱딱하고 고정적인 물성의 한계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에 유연하게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획일적인 조명디자인을 탈피하여 다양한 시도가 필요

하다. 이에 LED 광원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물이 아닌 나뭇잎이나 연잎 등의 자연물, 그리고 나비문양 등에 전통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보다 감성에 호소하는 조명디자인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소재 가운데 한지(韓紙)와, 전통문양 중 창살을 응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실내용 조명을 디자인하였다. 한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이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자연친화적 소재로서 새롭게 부각되어 각종 공예품은 물론 조명 등의 다양한 소재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창살은 창(窓)을 장식하는 살의 문양으로 건축에서는 창의 의미가 크며 그 집의 분위기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창살의 다양한

2016년 12월 12일 접수; 2017년 1월 11일 수정; 2017년 1월 16일 게재확정

[†] 교신저자 : 윤 여 향 (yohang@empal.com)

무늬는 건물의 외형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좋은 뜻이 담겨있어 기능성과 장식성은 물론 한국의 정서와 전통문화의 미의식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소재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한지와 창살을 각각 소재로 한 조명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자연물을 포함한 한지와 창살의 소재를 모두 아우르는 조명은 별로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서와 전통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소재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감성조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지와 창살이라는 전통적인 소재가 자연적인 재료와 현대적인 광원과 어우러져 감성조명의 연장선상에서 조명 하나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갈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인 각종 식물이나 곤충 등의 자연물이 지닌 속성을 한지와 결합하여 효과적인 조명디자인 개발을 시도하였다. 또한 각각의 재료가 갖는 특징을 파악하고 재료 본연의 성질을 다양하게 표현함에 있어 부합되는지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광원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우리의 전통소재인 한지와 창살문양, 자연물인 나뭇잎과 나비문양 등을 접목한 LED 조명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서 감성전달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조명디자인 2개안을 최종결과물로 제안하였다.

연구 방법은, 선행 논문을 포함한 관련 논문과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특히 전통소재로서의 한지의 특·장점 및 한지를 활용한 조명기구 사례를 연구하고, 전통창살의 소재는 물론 문양 분석을 통하여 감성조명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그중 많은 창살 가운데 가로살과 세로살이 네모반듯하게 교차한 정(井)자살, 세로축에 일정한 좁은 간격으로 살을 세우고 중앙과 상하에 일정한 개수의 살을 넣은 띠살, 그리고 한자의 이(亞)자로 중앙에 커다란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을 놓고 네 번에 살을 붙인 창살인 아자살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 전통소재와 자연물의 이론적 배경

2.1. 전통소재로서의 한지

2.1.1. 한지의 특징

우리나라의 전통 한지의 우수성은 예로부터 널리 알려져 왔으며, 닥나무를 주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닥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지는 다른 나라의 종이에 비해 희고 광택이 있으며 섬유질이 질긴 장점을 갖고 있어 예로부터 그 우수성이 탁월했다. 이러한 한지는 그림과 글씨를 쓰기 위한 용도뿐 아니라 다양한 공예기법으로 발전하여 여러 가지 기능적인 생활용품과 장식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재료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한지는 재료 자체로서 한국적인 미를 갖고 있고, 우리 민족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활용성이 높은 재료이다. 은근하고 은유적인 한국의 멋을 표현하기에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기법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타 종이에 비해 재질이 견고하고 세월이 지날수록 결이 고와지는 한지 본연의 특성은 미술재료로서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는 한지가 접착성이 좋고, 풀의 농도와 배접(裱接)하는 양에 따라 더욱 견고하고 단단해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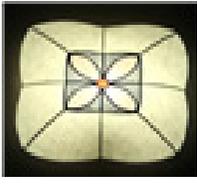
2.1.2. 한지의 장점

한지는 오랜 시간 변색하지 않고 유지하는 통기성(通氣性)과 보존성이 좋아 자연과 친화력이 좋다. 또한 견고성은 타 종이에 비해 재질이 질기므로 견고한 조형예술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이밖에 한지는 수용성(水溶性) 풀에도 접착이 용이하며, 풀의 농도에 따라 단단해지므로 입체작업에 유용하다. 그중에서 본 연구와 가장 적합한 것은 결합성(結合性)을 들 수 있다. 자연물인 식물의 꽃과 나뭇잎, 줄기뿐만 아니라 곤충 등을 결합하여 다양한 무늬와 질감 등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빛이 투과하는 양에 따라 비치는 정도의 조절이 가능하므로 조명에 적합한 반투과성(半透過性)으로 인해 오늘날 한지조명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천연 및 안료 염색을 통해서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이 가능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이러한 장

점으로 인해 한지는 조형적인 작업에 유용하며, 염색이 비교적 용이하여 기호에 따라 여러 가지 색상을 선택하여 작업할 수 있고, 작가가마다 개성 있는 작품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2.1.3. 한지를 활용한 조명디자인 사례

Table 1. 각종 한지를 활용한 조명(storefarm.naver.com/busybeestore/products)

	
<p>1. 흰색순지에 오색 한지 띠로 문양을 내어 간결하게 표현한 전등</p>	<p>2. 조각보의 문양을 이용하여 순지에 조각보를 표현한 전등</p>
	
<p>3. 흰색 운용지를 활용하여 꽃모양을 심플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전등</p>	<p>4. 전통 방패연의 디자인을 모티브로 하여 순지에 검정띠지를 활용하여 표현한 전등</p>
	
<p>5. 순지를 이용하여 아크릴 등에 붙이고 여러 크기의 다양한 전등을 조합하여 표현한 천정등</p>	<p>6. 와이어를 활용하여 형상을 만들고 한지를 모양에 따라 붙여 표현한 전등</p>

2.2. 전통 창살

2.2.1. 창살의 개념

창문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의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창살의 형태는 그 집의 분위기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창살의 다양한 무늬는 건축 외형의 장식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좋은 뜻이 담겨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표현

함으로써 복을 기원하거나 자연재해와 같은 해를 면하기 위한 상징과 같이 쓰여 졌다(김 1996). 전통창호 형식 중 가장 대표적인 살창은 울거미 속에 얇은 살대를 짜 만든 창호의 통칭으로 창살의 선과 선이 교차하여 만들어 내는 모양에 따라 명칭이 세분화된다. 살과 살이 만나 만들어지는 창살 문양은 구성미와 여백의 아름다움 자체로 빼어난 조형미를 형성한다(임 2014).

2.2.2. 창살의 종류

용자살 : 한자의 용(用)자에서 유래한 것으로 세로살 1개, 가로살 2개를 대어 만든 창살문양이다. 이 창살은 기타 문양에 비해 가장 살이 적고 최대한 간소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를 간명하게 하고 여백의 맛을 풍부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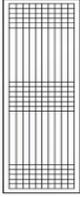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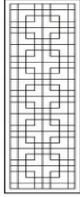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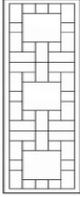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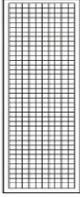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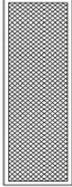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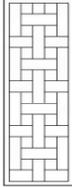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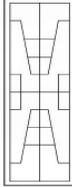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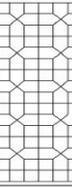
정자살 : 한자의 정(井)자에서 온 것으로 가로살과 세로살이 네모반듯하게 교차한 창살문양이다. 가장 기본적인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부석사무량수전(浮石寺無量壽殿)에 10개의 정자살 창호가 있으며 창문의 한복판에 정사각형의 테를 두르고 그 안에 정자살을 넣기도 하며 팔각형의 형태에 정자살을 넣기도 한다.

띠살 : 세로축에 일정한 좁은 간격으로 살을 세우고 중앙과 상하에 일정한 개수의 살을 넣은 창살문양이다. 용자살과 비교하여 보다 육중하고 다른 살보다 견고하여 일반주택, 사찰, 궁궐 등의 여담이문에 많이 사용되는 창살이다.

아자살 : 한자의 아(亞)자로 중앙에 커다란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을 놓고 네 변에 살을 붙인 창살문양이다. 아자살은 살과 살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형태는 단정한 아름다움을 특징으로 삼는다. 완자문과 더불어 아자의 기본형의 발전에 따라 생겨난 무수한 기하학적인 비례의 아름다운 문양들이 많이 탄생되었다.

완자살 : 완(卍)자는 일만 만(萬)자의 옛글자이고, 중국 음으로 완이라 한데서 비롯된 형태로 사각형의 네 귀를 다른 사각형의 변으로 물려놓은 창살문양이다. 완자살은 시각(視角) 또는 조사(助射)하는 광선에 따라 면의 크기, 음영 등이 변화 있게 보이게 된다. 따라서 울동적인 변화를 이루며 동적이고 화려하여 보통 궁궐이나 귀족의 주택에

Table 2. 창살 디자인 및 종류

				
띠살	용자살	완자살	아자살	정자살
				
빗살	숫대살	귀자살	귀갑살	꽃살

1992. 백지희. 한국전통문양의 조형성.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p.9.

서 많이 사용되었다.

빗살 : 창틀에 가는 살을 일정한 간격으로 서로 교차시켜 짜 넣은 형태의 창살문양이다. 일반 벽에 높이 독립된 창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사찰, 왕궁의 정면 창호에 널리 사용되었다.

꽃살 : 궁궐, 법당 등의 중요한 건축에 쓰인 것으로 창문살에 꽃문양을 조각하여 짜 맞춘 창살문양이다. 꽃살은 창살의 모양이 모두 꽃으로 단장된 것을 말하며, 다른 형태에 비해 조각 기법이 독특하고 하나의 목조각으로서도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숫대살 : 살대의 짜임새가 가로 세로로 배열해 마치 섬을 할 때 쓰던 산가지를 펼쳐놓은 것 같은 창살이다. 사대부집의 남성공간인 사랑채나 별당

에 많이 쓰였다.

귀자살 : 한자의 귀(鬼)자를 살 무늬로 구성한 창살문양이다.

귀갑살 : 살대를 거북이등(龜甲) 모양으로 짠 형식의 창살문양이다. 방과 방사이의 문으로 쓰인다 (이 1998).

2.2.3. 창살을 활용한 조명디자인 사례

전통 음식점이나 한옥에 조명으로 많이 사용되는 창살을 이용한 조명등은 대체로 사각모양의 아자살을 응용한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한지공예 품으로 변형된 창살등도 인테리어 조명으로 많이 사용된다(Table 3).

Table 3. 다양한 창살을 활용한 조명(blog.naver.com/worldmarkets)

		
아자살의 창살을 응용한 사각의 천정등	용자살의 창살을 응용하여 대나무와 조화를 이룬 전등	변형된 완자살의 창살을 응용한 한지 사각전등

Table 4. 각종 자연물의 예시

			
나뭇잎		단풍잎	
			
연잎	투명 잎	나비문양	

2.3. 자연물의 개념 정립

2.3.1. 자연물 소재의 감성조명

감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으나 감정을 방향성 있는 ‘느낌’ 상태로 정의하고, 이는 정서와 기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조명을 통해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고자 한다. 따라서 감성조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조명을 매개체로 하여 자연스러운 대화가 시작되거나, 긍정적인 생활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감성조명은 조명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사용자의 감성을 이끌어내는 데 그 가치가 있다(윤과 조 2016).

이를 위해서 감성조명의 소재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물로 나뭇잎이나 연잎 등의 식물이나 곤충을 사용하고, 이를 구해 책갈피에 평평하게 건조하여 자연 그대로의 잎맥이나 모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재료로 사용하였다. 나뭇잎은 여름보다는 가을에 습기가 거의 없는 마른 나뭇잎

을 위주로 하였다. 여름 나뭇잎은 푸르고 선명하나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 건조 시 자연 그대로 잎맥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쉽게 썩어 재료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나뭇잎은 매우 건조하여 비스킷(Biscuit)처럼 깨지기 쉬워 조명재료로 활용 시 분무기를 활용하여 건조된 자연물의 앞뒤에 충분한 습기를 분사하여 준다. 이는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며 작품을 제작해야 자연물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으며 폴로 배접하거나 한지와 접합 시 매우 용이하다(Tabl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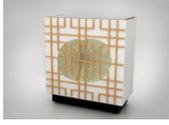
2.3.2. 자연물과 자연물 형상을 활용한 감성조명 디자인 사례

자연물과 자연물의 형상을 활용한 조명은 주로 인테리어 조명으로 호텔이나 카페 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건조한 현대적인 건물에 나뭇잎이나 나비 등 자연물의 형상을 활용한 감성조명은 생활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Table 5).

Table 5. 자연물과 자연물 형상을 활용한 디자인(cafe.naver.com/grimf)

			
연잎을 모터프로 와이어를 사용하여 만든 조명	나뭇잎의 형상을 깔때기 처럼 말아 만든 천정조명	나뭇잎의 잎맥을 그대로 살려 와이어로 만든 조명	한지에 나뭇잎을 붙여 만든 천정조명
			
나비의 모양을 다양하게 구성한 조명	보라색 원단을 사용하여 나비의 모양을 만든 조명	와이어를 사용하여 만든 나비조명	LED 조명을 활용하여 만든 나비조명

Table 6. 아이디어 전개

단풍잎	투명잎	연잎
		
		
잘 말린 단풍잎을 변형된 정(井)자살 창살을 응용하여 나비문양을 조화롭게 배치한 조명	투명잎과 나비문양을 활용하고 정자살을 위아래로 배치하여 투명잎이 돋보이게 만든 조명	큰연잎은 완자살, 작은연잎은 띠살을 응용하여 연잎의 줄기가 은은하게 보이도록 만든 조명

3. 전통소재와 자연물을 활용한 조명디자인

3.1. 디자인 전개 과정

3.1.1. 디자인 배경

전통 창호의 창살은 선과 선이 교차하여 만들어 내는 모양에 따라 구성미와 여백의 아름다움은 물론 장식적인 역할을 동시에 보여주는 뛰어난 조형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가장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전통소재로 선택된 다양한 창살의 문양이 잘 연출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상하였다. 그중에서 가로살과 세로살이 네모반듯하게 교차한 정(井)자살과 변형된 정자살 등을 선택하여 준비된 자연물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최대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3.1.2. 아이디어 전개

선택한 자연물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각 소재에 맞게 배치하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

결정된 디자인 안을 정해진 창살과 자연물 및 나비문양 등이 효과적으로 표현되기 위해 전통 한지인 순지(純紙)의 소재에 맞도록 배치하여 세부 형태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형태의 도면을 바탕으로 3D 렌더링을 통해서 가상의 형태를 미리 구현해 봄으로써 실제로 조명이 적용되었을 때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그 효과를 미리 테스트 하여 평면적인 스케치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각 소재의 특징과 형태를 살펴보고, 미세한 배치 조정을 통해서 효과를 점검하여 실제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파악하여 수정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Table 6).

3.2. 구조 및 재료

3.2.1. 구조

조명의 기본 틀이 되는 몸체는 3 mm 투명아크릴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아크릴을 제작하여 아크릴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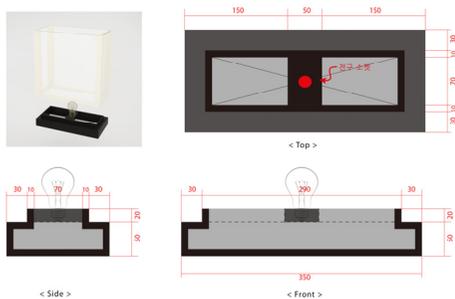


Fig. 1. 조명받침 도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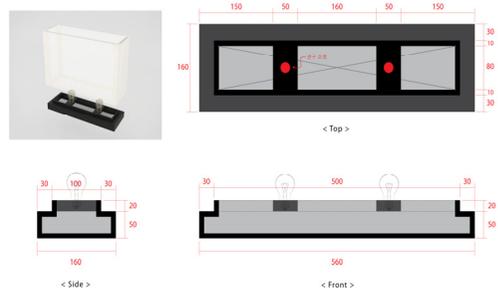


Fig. 2. 조명받침 도면-2.

로 고정하고, 앞판과 옆판 2개씩을 기둥으로 하여 (직)육면체를 만들고 상판아크릴은 먼지나 조명의 완성도를 위하여 막았다. 하지만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동 및 전구 교체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폭 20 mm의 긴 타원형 홀(Hole)을 좌우측에 뚫어줌으로써 미적인 감각도 살렸다.

또한 하단에는 폭 3 mm의 아크릴을 사각 링(Ring) 모양의 프레임(Frame)을 만들어 전등의 각을 잡아주는 동시에 튼튼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원(光源)은 조명등의 크기에 따라 LED 조명을 중앙에 1개를 설치하거나, 조광(照光)을 위하여 중앙에 나란히 2개를 설치하였다(Figs. 1-2).

3.2.2. 재료

창살은 정자살의 변형으로 한자의 정(井)자에서 온 것으로 가로살과 세로살이 네모반듯하게 교차한 창살문양을 선택하여 단풍잎과 투명잎을 한지와 한지 사이에 나비의 문양과 배접하여 자연스러운 멋이 나오도록 디자인하였다. 특히 창살을 좀 더 고풍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동나무의 재질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창살 제작에 있어 살과 살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형태는 단정한 아름다움을 특징으로 하여 거의 옛 창

살의 모양과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창살의 두께는 5 mm로 조명이 완성되었을 시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도록 제작하였고,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창살과 자연물이 적절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였다.

3.3. 제작 과정

우선 3 mm 두께의 투명아크릴을 도면에 맞게 재단하여 아크릴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사각으로 조립한다. 한지는 빛의 투과성을 위해 50 g 미만의 얇은 한지를 사용하여 접혀서 속으로 들어간 부분 즉, 시접을 대략 5 mm 정도 남기고 재단한다. 재단된 한지는 목공용 본드와 밀가루 풀을 1 : 1로 혼합하여 조립된 아크릴조명 틀에 공기가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밀착하여 붙여준다. 잘 붙여진 한지 위에 자연물을 배치하여 위치를 잡고 그 위에 다시 풀칠을 고루 해주며 자연물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연물을 붙이기 이전에 분무기를 사용하여 미리 습기를 조절하여 준비하면 자연물의 파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붙여진 자연물 위에 다시 한지를 도포하듯 붙여준다. 이렇게 하면 한지와 한지 사이에 자연물이 놓이게 되어 은은한

Table 7. 제작 과정

1. 아크릴을 모양에 맞게 재단하여 아크릴 전용 접착제를 사용해 조립한다.	2. 조립된 아크릴 크기에 맞게 한지를 시접을 두고 재단하여 준비한다.	3. 목공용 본드와 밀가루 풀을 이용하여 재단된 한지를 조립된 아크릴에 붙인다.	4. 아크릴에 붙여진 한지 위에 다시 풀칠을 넉넉하게 하여 자연물을 붙이기 쉽게 준비해 준다.
5. 풀이 마르기 전에 준비한 자연물을 디자인해 놓은 위치에 조심스럽게 붙여준다.	6. 자연물을 붙인 후 다시 풀칠을 정교하게 한 후에 한지를 자연물 위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붙여준다.	7. 자연물이 상하지 않도록 하여 다시 위에 한지를 붙임으로써 한지와 한지 사이에 자연물이 놓이게 한 후 창살을 정교하게 붙여준다.	8. 한지와 자연물, 그리고 창살을 이용한 감성조명을 완성한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명받침에 조립된 광원을 설치하면 선명한 자연물을 볼 수 있는 조명등이 된다. 이후 준비된 전통창살을 목공용 본드를 이용해 붙여 완성하였다(Table 7).

3.4. 최종 결과물

Table 8. 최종 결과물



한지의 특징 및 장점을 살펴보고 한지를 활용한 조명디자인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로써 창살문양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아름다움의 중요성과, 빛이 창살을 통해 실내공간으로 들어올 때 한지가 주는 고즈넉한 분위기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미가 서양문화와는 확연하게 다른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내조명에서 전통 조명이라는 한계성을 뛰어넘어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연물을 넣어 다양하게 시도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조명디자인의 제안은 전통적인 소재인 창살과 한지가 단순한 전통의 계승과 답습이 아닌 현대적이고 산업적으로 공감을 얻어야 하고, 창살문양과 한지를 활용하여 현대적 감각에 어울리게 재구성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실내 조명디자인 이외에도 새로운 전통소재를 활용한 디자인이 개발되기를 바라며 조명디자인의 표현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된다.

사 사

이 논문은 2015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4. 결 론

한국의 전통적인 창살문양은 형태가 다양하여 구성미와 형태의 아름다움이 창살 그 자체로도 빼어난 조형미와 집안의 분위기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전통 한지는 오랜 시간 변색하지 않고 유지하는 통기성과 보존성이 좋아 자연 친화력이 좋고, 질기고 견고한 재질로 인해 조형예술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재와 자연물 등을 활용하여 현대적인 광원과 어우러져 실내에서 조명 하나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명디자인에 관한 연구와 개발이 그다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전통 창호의 개념 및 종류의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명칭별 창살문양을 분석함으로써

참 고 문 헌

김미경. 1996. 한국 창살무늬를 이용한 조형연구, 상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백지희. 1992. 한국전통문양의 조형성.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9.
 윤여향, 조늘해. 2015. 감성조명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95.
 이동욱. 1998. 창살문양을 이용한 가구디자인 연구. 경성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6-12.
 임은진. 2014. 한국 전통창호의 창살문양 표준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13.
storefarm.naver.com/busybeestore/products/468157414.
blog.naver.com/worldmarkets/120089087986.
blog.naver.com/designsoma/220536834854.
cafe.naver.com/grimf/165.